

'2000억원대' 잭슨 폴록 대표작 ACC 온다

CULTURE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버넷 뉴먼 작 '무제 1'

세계 미술계 흐름을 이끈 뉴욕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사장 김명규)은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특별전시를 7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6관에서 연다.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뉴욕 유대인박물관의 명작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다.

유럽으로 대표되는 유구한 서양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뉴욕화파 작가들에 의해 '추상표현주의'라는 새로운 시각 표현 방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다룬다.

또 시대의 흐름을 이끈 거장들의 작품 활동을 돌아보고, 20세기 중반 예술의 중심지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총 6부로 나눠 조명한다.

전시 참여 작가는 시대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거장 21명이다.

추상표현주의 창시자 잭슨 폴록을 비롯해 색면 추상의 대가 마크 로스코, 개념미술 대표 작가 솔 르윗, 최소주의(미니멀리즘·minimalism) 조각가 리처드 세라, 현대 추상 조각의 선구자 프랭크 스텔라, 팝아트의 아버지 제스퍼 존스 등 화려한 수식어와 명성을 갖춘 뉴욕 거장들의 작품 35점을 만날 수 있다.

출품작들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잭슨 폴록 작 '수평적 구조'

ACC재단, 개관 10주년 특별전
내달 18일부터 '뉴욕의 거장들'
마크 로스코 등 21인 작품 35점
30일까지 사전 예매 50% 할인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추상표현주의 초기 작품부터 전 세계 미술 애호가



마크 로스코 작 '십자가'

들의 사랑을 받아온 최소주의 작품까지 현대 미술사의 주요 사조를 망라한다.

특히 현재 2000억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잭슨 폴록의 대표작과 함께 미술사적 연구 가치가 높은 마크 로스코의 초기 작품을 동시에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현대미술 거장들의 시선을 따라 작품을 감상하며, 변화와 혁신을 이끈 20세기 중반 뉴욕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또 전시장에서는 방송인 전현무가 해설한 음성 안내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거장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재현한 비디오 안내가 제공돼 전시 관람을 돕는다.

김명규 사장은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문화를 꽃피운 도시"라면서 "자유로운 표현과 창의적 도전을 통해 기존 관념을 뛰어넘었던 과거 뉴욕의 거장들처럼, 이번 전시가 오늘의 관람객들에게 예술이 지닌 자유정신과 혁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 관람권은 성인 1만3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만원이다.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사전 구매하면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관람권은 카카오톡을 비롯해 네이버, 티켓링크, 인터파크 채널을 통해 판매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해태 타이거즈와 광주 소시민들의 이야기

연극 '하이타이' 20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서
임갑교씨 실화 모티브...배우 김필 1인 30인역 열연

80년 5월 이후 살아남은 광주 시민들이 유일하게 소리치고 목소리 높일 수 있었던 광주 무등경기장. 그 시절 해태 타이거즈는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였다.

한 시대를 풍미한 한국 프로야구팀 해태 타이거즈의 최초 응원단장인 임갑교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격동의 현대사와 소시민들의 인생 분투기를 그린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코스모스와 대기획이 기획한 연극 '하이타이'가 20일 오후 7시30분과 21일 오후 2시·6시·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하이타이'는 해태 타이거즈팀 최초 응원단장인 임갑교씨를 모티브로 탄생한 주인공 이만식이 들려주는 한편의 모노드라마다.

민주주의로 향하는 1980년대 격동의 시기를 살아간 이만식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대사의 아픔과 추억, 야구장을 달궜던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되새긴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

에겐 향수를, 청년 세대에게는 현대사의 이해를 높이고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줄거리는 이렇다.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 위치한 해태 세탁소. 이씨는 20년째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 옆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유니폼 세탁을 도맡고 있다. 이씨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구단은 월드시리즈 시구를 제안한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밤, 이씨는 세탁소로 모여든 동네 주민들과 야구단 사람들 앞에서 호루라기 하나로 해태 타이거즈의 응원을 진두지휘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광주시민으로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 전개와 다양한 오브제의 활용, 사운드 등을 활용해 1인극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특히 관객 참여 형태로 진행되는 국내 최초 1인 30인역의 모노드라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배우 김필이 90분 동안 주인공 이만식 외 30인역을

맡아 변화무쌍한 연기를 보여준다. 김필은 '2012년 한국배우연극협회 올해의 배우상', '2024 무작페스티벌 최우수연기상' 등을 수상한 대학로 출신 베테랑 배우다. 극작은 김명환, 연출은 최병호가 맡았다.

작품은 '2024 춘천연극제'에서 우수작품상과 최우수연기상 2관왕을 수상했다. 원작은 국립극단의 '2017 작가의 방' 낭독극장과 두산아트센터의 '2019 두산아트랩'에 선정된 바 있다.

극단 코스모스 관계자는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진짜 광대 이만식,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만식들에게 전하는 공감과 위로, 희망의 무대다. 전설의 해태 타이거즈팀을 그리워하는 많은 관객들과 호흡하고자 한다"면서 "좋은 공연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 예매는 티켓링크 또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문의 1688-3820. 김다경 기자 alsqsd194@



낭만의 목요일밤 문화 공연 즐겨볼까

광주문화재단 '목요콘서트' 19·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웅)은 '목요콘서트' 6월 무대를 19일,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펼친다.

19일 5회차 무대는 광주트럼펫퍼머너가 'Trumpet Brilliance: 빛을 머금은 소리'를 선보인다.

현대 트럼펫 작곡가 Eric Morales와 Marcus Grant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나본다.

26일 6회차는 포레스트의 '클래시네마: 영화 클래식에 물들다' 순서다.

포레스트는 악기연주 및 동화를 이용한 뮤지컬,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



6회차 무대를 선보일 포레스트.

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무대를 통해 지역 공연에 활성화에 힘쓰는 예술단체다.

이날 공연에서는 다양한 영화 속 클래식의 향기

가 녹아있는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4회차 공연에서는 협동조합 효성이 'Brass Romantica'를 주제로 금관악기의 품성한 울림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낭만적인 감성을 재조명하는 품격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목요콘서트는 공모를 통해 우리 지역의 역량 있는 전문 예술 공연단체들의 무대를 선보인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8회 공연을 진행한다.

광주문화재단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전체 관객의 10% 이상(약 10석 내외)을 광주 문화누리 이용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하며, 공연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게 전달한다.

자세한 정보는 광주문화재단 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5000원. 문의 062-670-7942.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근대사와 함께한 '등록문화재' 재조명

하정웅미술관, 8월 17일까지
미술단체 '포럼 디세노' 초대
'광주와 근대정신'전 6명 출품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5 하정웅미술관 미술단체초대 '광주와 근대정신'전을 11일 개막, 오는 8월 17일까지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한다.

'포럼 디세노' (대표 박일규)는 광주 근대화 시기의 핵심적 역사 유산인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소속 사진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전통의 보존과 동시에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는 등 문화적 실천을 수행해왔다.

특히 소속 작가인 이정록, 이세현, 안희정, 박일규 등은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로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광주 근대화유산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와 근대정신'전은 정철호 전시기획자의 제안으로 시작, 광주의 근대화유산에 6명의 사진작가(이세현 김효중 이정록 김사라 박일규 안희정)가 가진 다양한 시각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한 사진전이다.

이번 전시는 광주 근대사와 함께 온 등록문화재를 재조명하고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의 차원을 넘어, 현대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작가들의 창작지원



이정록 작 '구 수피아여학교, 커티스메모리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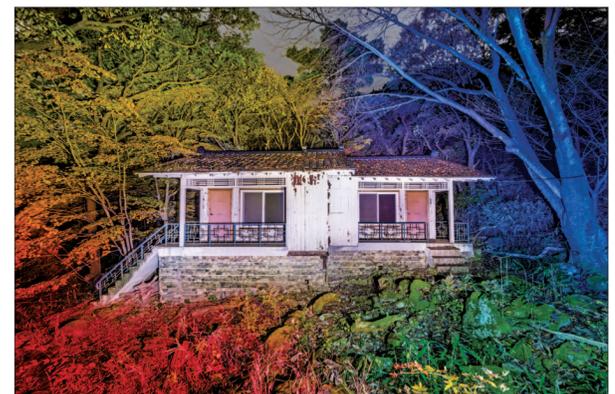
과 소통을 통한 지역미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미술그룹과 협업하는 전시를 도입했다.

올해는 2023년 12월 사진전시관 폐관으로 전시기획이 줄어든 사진계를 배려하기 위해 광주의 등록문화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포럼 디세노를 섭외해 공동주최 전시를 진행하게 됐다.

윤익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의 근대화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대적 의미를 지닌 문화자산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다양한 콘텐츠로의 개발을 기대한다"며 "광주 지역의 사진작가 지원과 미술작가 창작지원 활성화 등 지역미술문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4시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며, 개막식 이후에는 빛고을예술공연단의 야외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세현 작 '푸른 낮 붉은 밤' 구 무등산 관광호텔01'